

# 북

## Books

# 살인, 그 끝없는 공포와 긴장

킬러, 형사, 탐정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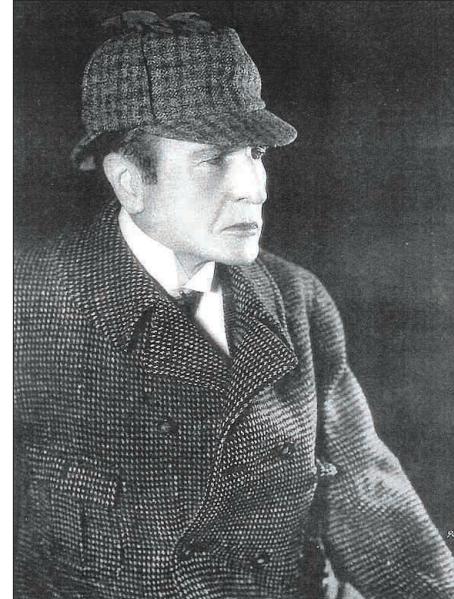
와르크 폰 우트만 자음

3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조승회씨의 미국 범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도대체 왜?'에 펼리고 있다. 그가 남긴 메모와 행적들을 통해 '소심한 외톨이'의 극단적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것을 어렵잖이 짐작할 뿐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정확한 범행동기는 알 길이 없다.

'살인'은 카인과 아벨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범죄다. 독일인 저널리스트 와르크 폰 우트만이 쓴 '킬러, 형사, 탐정클럽'은 가장 흥미롭게 접하면서도, 주변에 쉽게 볼 수 없는 '살인사건'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살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장르에서 자주 다루기 때문이다.

저자는 현실과 하구의 살인사건을 폭넓게 수집·분석해 씨실과 날실처럼 엮어놓았다. 18세기 이전 살인사건을 둘러싼 사법·당국과 살인자의 숨바꼭질은 비교적 어렵지 않았다. 당시에는 진범의 여부를 떠나 의심이 가는 인물을 고문하면 쉽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17세기 독살범 브랑빌리에 후작부인, 아름다운 살인범으로 불리운 베아트리체 첸지 등 중세의 실제 인물들을 통해 살인사건의 내막을 들춰낸다. 고문 수사는 경찰이 등장하고 한 동안 지속된다. 19세기 초반 독일의 공국(公國) 작센-코부르크-고타를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사라진다. 이젠 과학적 범죄수사 경찰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무대에서 30년 동안 설록 흄즈로 살았던 윌리엄 질레트.

1809년 프랑스 파리 경찰국에 찾아온 프랑수아 비도크는 자신의 범죄 지식을 경찰에게 건네고, 과거를 묵인해준다는 거래를 성사시킨다. 경찰국은 비도크의 도움으로 위조사기단 일당을 소탕했다. 비도크는 이후 자신이 체험한 범죄를 기록한 '회고록'을 써내고 세계 최초의 사법탐정 사무소를 연다.

'살인'은 대중에게 친숙(?)하게 한 일동 공신은 코난 도일이 만들어낸 명탐정 설록 흄즈다. 영국의 시인 애드거 엘런 포가 쓴 '모르그가(家)의 살인 사건'은 추리소설의 모태가 됐다. 살인은 추리소설 뿐 아니라 세이스피어, 고테, 도스토예프스키, 카뮈 등의 순수 문학소설에서도 수없이 등장한다. 영화 속 살인은 흔한 소재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저자에게 살인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 마지막



O.J. 심슨은 재판장에서 증거로 제시된 장갑을 끼어보이며, "내 장갑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에서 저자는 20세기 이후 현대의 살인사건을 들추면서 사법제도의 변천과 함께 살인범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정신적 결함은 사건 또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형제는 필요한 건지 등을 묻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인류의 숙제인 '살인'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저자는 또 '고문'이 없어진 뒤 수사관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는지 고찰하고 신원 파악의 오류와 성과는 무엇인지를 짚어낸다. 살인마 짱이나 O.J. 심슨 등의 경우처럼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백과사전처럼 자세히 안내하지만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열대림·1만2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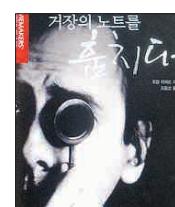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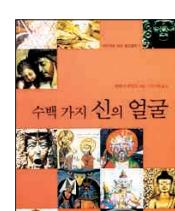
▲과학자 조경철 별과 살아온 인생='아풀로 박사'로 잘 알려진 조경철 박사의 자서전. 저자는 김일성대학을 다니다 월남했던 일, 정치학을 공부하려 미국에 갔다가 천문학자가 된 일 등을 회상한다. 저자의 이야기에는 비운의 한국사가 담겨 있다. <서해문집·1만2천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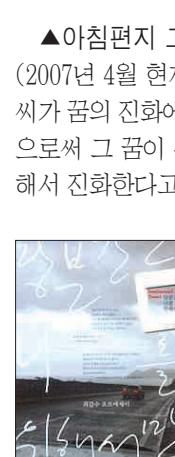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재독 한인학자 송두율 교수가 '경계인의 사색' 이후 5년 만에 출간한 책. 저자는 지난 2003년 한국에 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년여 동안 끌어 있었다. 당시의 느낌과 독일로 돌아간 후의 일상을 담담하게 털려준다. <후마니티스·1만5천원>



▲거장의 노트를 훔치다=프랑스 영화 감독이기도 한 로랑 티라르가 했던 영화 감독 21명의 인터뷰를 끝으로 책. 저자는 올리버 스톤, 기타노 다케시, 장 뤽 고다르, 우디艾伦 등 거장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나비장책·1만2천원>



▲수백 가지 신의 얼굴=미지로 보는 종교철학'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시대·지역·종교별로 신의 모습은 수백·수천 가지를 헤아린다. 우리에게 친숙한 불교나 기독교 뿐 아니라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신의 얼굴도 볼 수 있다. <안티쿠스·1만8천원>



▲아침편지 고도원의 꿈=매일 아침 180여만 독자(2007년 4월 현재)들에게 편지를 보내 하루를 열어주는 고도원 씨가 꿈의 진화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저자는 한 가지 꿈을 이를 것으로써 그 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꿈은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말한다. <나무생각·1만1천원>



▲당분간은 나를 위해서만=사진작가 최

갑수씨의 포토 에세이집이다. 시인으로 데뷔

하기도 했던 저자가 카메라를 메고 10년 동안

여행하며 담은 풍경을 글과 함께 실었다. 한

번쯤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현대인에게

권하는 '위우의 서'다. <예담·1만2천원>



▲영기 고대왕조실록='영기 조선왕조실록', '영기 조선풍속사'에 이은 영기 시리즈 3단. 한민족의 고대사를 현대적 상상력으로 복원했다. 저자 황근기씨는 삼족오의 탄생 비화 등 몰랐던 고대사의 이야기들을 읽기 쉽게 풀어썼다. <추수별·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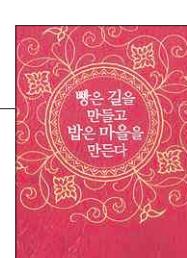
▲천일의 유리(전권)=일본의 대표 작가 미루야마 겐지가 지난 1992년 자신의 데뷔 30주년을 즐기며 창작한 장편소설, 총 1권. 한민족의 고대사를 현대적 상상력으로 복원했다. 저자 황근기씨는 삼족오의 탄생 비화 등 몰랐던 고대사의 이야기들을 읽기 쉽게 풀어썼다. <문화동네·각 권 1만1천원>



▲단테의 신곡 살인=단테의 '신곡' 중 '지옥 편'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 1756년 베네치아 한복판의 극장에서 마르첼로라는 유명 배우가 십자기에 못 박혀 죽는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계속되는 연쇄살인은 '지옥 편'에서 나오는 9개 지옥의 형벌을 재현하고 있다는 규칙이 발견된다. <황매·1만2천원>

## 빵과 밥, 문명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다

빵은 길을 만들고 밥은 마을을 만든다 권삼윤 지음



업별 신(神)을 따로 두는 다신교가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언어는 어떤가. 서양은 듣는 사람에게 의사를 빨리 전달하는 게 요체다. 동양은 청자에게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는 게 중심이다. 영어의 경우 주어가 먼저 나오고 사건의 핵심인 서술어가 바로 붙는다. 반면 우리말은 주어를 종종 생략하고, 상황 설명을 위해 필요한 목적어가 기술된 다음 서술어는 맨 끝이다.

저자는 이같은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틈'을 제시한다. 틈은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통로이자, 자연을 받아들이는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밥과 빵은 종교적인 차이도 만들었다. 빵 문화권은 목축을 하고 밀을 경작하면서 초월적인 존재가 목조와 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함에 따라 유일신 사상이 정립됐다.

반면 밥 문화권은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각각 직능별, 직

지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각각 직능별,

인터넷 만화 '위대한 갯츠비'

로 잘 알려진 만화가 강도하씨

가 신작 '로맨스 킬러'(전 2권)

를 출간했다.

전작이 20대 후반 젊은이들의 사랑과 미련, 고통스러운 집착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40대를 앞둔 킬러의 청춘 이야기다. 그의 청춘은 벼리지 못한 로맨스로 인해 미완성이며 그래서 더 치명적이다.

인터넷에서 연재됐던 온라인 만화를 책으로 옮겼지만, 컬러판형과 깔끔한 퀄리티로 온라인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비쥬얼 면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아 영화로도 제작 중이다. 본명 그림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아이들의 문화로 치부해버리는 '만화'를 뛰어넘어 '그림소설(Graphic Novel)'의 장르를 실현했다고 할 만하다.

<애니복스·각 권 1만6천원>

싱그러운 새봄을 맞아 모디쉬갤러리가 신축 오픈이벤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디쉬갤러리**

**Open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할인

로마, 화장대, 침대(에트리스별), 험복

볼륨 랭 2+2 가죽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죽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금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 전화기 (선택순 20명)

→ 39,000원

미카엘 거실장식세트



미카엘 침실세트(연결장롱12자+화장대세트+침대(K+朴素))

Open기념 황토침침대, 장수온돌침침대 한정판매



미카엘 5단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카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http://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매대학 Sopwith Bay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TESOL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장!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 동아경찰영어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일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장! 예술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 &lt;h